

전국 최초 수소 시내버스 안전 협력체계 구축

전주시-현대자동차-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전주비전대-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성 강화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수소 기반 대중교통의 안전관리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소 시내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평화동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현대자동차,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전주비전대학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수소 시내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수소 시내버스 안전관리에 관련된 모든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협력체계로, 행정과 수소 시내버스 제작사와 운영사, 교육기관, 안전관리기관이 함께 수소 시내버스의 전 주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수소버스 폭발 사고와 수소충전소 화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실제로 현재 전주시역에서 운행 중인 394대의 시내버스 중 45%(인 178대가 수소버스다. 여기에 시는 오는 2031년까지 전주시내버스를 전면 친환경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향후 수



전주시는 22일 현대자동차,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전주비전대학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수소 시내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소버스와 전기버스 확대 도입이 예정돼 있어 이번 협약을 준비해왔다.

참여기관들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전기·특별 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수사의 정비역량 강화 △신규 인력양성 등 수소버스의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시는 종합안전계획 수립과 친환경버스 도입 지원을 총괄하고, 협력체계 운영을 주도한다.

시내버스 운수사는 전기·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운수사 정비인력에 대한 집체교육과 전기·특별점검 참여를 통해 수소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운전 및 정비인력의 실무교육과 RSE 사업을 통해 버스 운전 및 정비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 및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점검 매뉴얼 검수와 더불어 전기·특별점검에 함께 참여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 시내버스 안전관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시는 이번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기린대로 BRT 구축 등 대형 교통 프로젝트와 연계해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아닌, 수소 시내버스 안전관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종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수소 시내버스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는 데 협약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하계올림픽 유치 지지 요청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취임식 참석해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체육계 대표와 주요 종목단체 회장 등을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올림픽파크빌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 제22대 김동문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김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최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애쓰는 종목단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대표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육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국내 후보도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종목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종목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영농폐기물 체계적 수거 지원 기반 마련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성국 의원(효자동·사진)이 발의한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페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는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수거보상비 지급 및 공로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성국 의원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토양과 수질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인후2동 새마을협의회 봄맞이 환경정비 나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새마을협의회(회장 이정섭)는 지난 21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백제대로 일원에서 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환경취약지를 중심으로 동네 곳곳에 쌓여 있던 각종 쓰레기를 정비해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또한, 책임 구역인 대로변 버스정류장과 주요 주행로, 통행로 주변에 자라난 잡초 제거와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정섭 인후2동 새마을협의회장은 "지역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인후2동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집중호우 대비 도로·하수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전주시 완산구, 지하차도·언더패스 등 침수 취약시설 점검 관리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성 폭우와 같은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완산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정비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언더패스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을 비롯해, △하수관로 △가로등 등 주요 기반시설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외부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도시시설물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하차도·지하보도·언더패스 내 △출입차단시설 △경보장치 △CCTV △배수펌프 등에 대

한 작동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히 보수·보강 작업을 시행하고, 향후 유지보수업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구는 침수 우려가 높은 저지대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하수관로 진단을 통해 △발발 덮개 설치 여부 △맨홀 파손 유무 △이물질 적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 및 교체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 점검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구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구는 주민센터와 협조해 도로변 빗물받이에 퇴적된 낙엽과 토사, 담배꽂이 등 이물질을 정비하고 있으며, 도로의 포트홀과 균열 상태도 점검한 후



발견된 포트홀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안전신문고 앱' 등 각종 민원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항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침수 등 도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 시설과 도로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사전 대응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전주시는 22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의 4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별도 교육이 의무화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안전성평등교육진흥원의 폭력예방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홍미진 마음채심리상담센터장이 강사로 초청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배경을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를 강조했다.

특히 홍 강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스토킹의 심각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 방안도 소개해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은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옮겨가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